

창닫기

[사람과 사람]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의 발전 제안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은 지역 경쟁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지역이 웃어야 나라가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지역 발전 정책을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으로 만들겠습니다."



24일 취임 1년을 맞은 최상철(70)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1세기는 지역이 강해야 나라가 강해지는 시대"라며 "대구경북도 광역경제권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내륙 도시의 한계를 빨리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는 2003년 4월에 발족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새로운 이름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지역발전기획단은 기획정책국, 지역협력국, 지역경제국, 지역개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역 발전의 키워드가 '균형'이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산술적 평준화인데 비해 발전은 균형과 성장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의 말대로 지역발전위가 그간 내놓은 정책을 보면 광역화·특성화·분권화 등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담고 있다.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5+2 광역경제권 개발'이 대표 상품이고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지역별 성장거점 추진,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제 도입, 특별행정기관 지역 이양 등이 포함된다.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등 4대 벨트의 연계 개발과 함께 '4+알파' 초광역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낙동강문화벨트도 들어있습니다. 또 경북 북부 등 낙후된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정해 도시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6월 중에는 초광역개발권 기본 구상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006년 정년퇴임 때까지 교수를 지낸 최 위원장은 국내의 대표적 도시계획 전문가로 꼽힌다. 경북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피츠버그대학에서 도시계획 석·박사를 받았고 1968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국내 첫 도시계획학과를 만들었다.

"1964년 건설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1965년 서울시 도시계획 담당 사무관로 옮기면서 도시계획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도시기본계획'에는 서울 테헤란로, 올림픽경기장, 경인운하 등 지금 서울의 모습이 모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당시의 에피소드 하나. "5·16혁명 이후 국회의사당을 어디다 지을까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종묘 자리는 전주이씨 문종의 반대로, 남산음악당 자리는 입법부가 행정부(청와대)를 내려다본다는 이유로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대방동 해군사관학교 자리가 유력한 대안이었는데 여의도에 제방을 쌓고 나니 큰 빈 땅이 생겨 결국 최종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행정수도와는 악연을 맺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참여정부 당시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신행정수도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전력 때문이다.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임시행정수도를 추진해놓고 나중에는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했던 임시행정수도는 안보적 차원에서 유사시에 대비한 프로젝트였고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했던 수도 이전은 말 그대로 '천도'였습니다. 저는 수도 이전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반대했죠."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대 사대부고를 중퇴한 그는 경북대에서 사회 교육을 전공했다. 선친의 작고로 갑자기 가장이 되는 바람에 사회 진출을 서두르기 위해 고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제가 지방대학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대 대학원장을 했습니다. 지방 출신이라는 점을 항상 잊지않고 살아왔죠. 제가 맡고 있는 자리가 특정 지역을 도울 수는 없지만 고향에 대한 애정과 소명감은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낙동강을 활용한 3대 문화권 개발 ▷구미-대구-영천-포항을 잇는 산업벨트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는 최 위원장은 지역 특유의 폐쇄성 탈피가 새로운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기사 작성일 : 2009년 05월 11일